

적색품종 개발 로열티 절감·경쟁력 확보

전남 장미 신품종 육성 박차

농산물 수입 개방과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장미 로열티 절감을 위한 전남도의 신품종 육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소장 윤봉기) 화훼연구팀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드참 등 고품질 장미 12개 품종 육성에 이어 시장성이 좋은 카베넷, 아쿠아, 이노센스 등 우수 품종 100조합, 4천 개의 꽃을 교배해 우수 품종을 선별하고 있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미 가격과 꽃 색깔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적색(赤色)계 장미가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색장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색계 장미는 계절적인 수요·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가격이



농기원, 레드참 등 고품질 12개 품종 개발

높아 상품성이 높은 적색품종을 개발할 경우 외국품종 로열티를 절감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훼연구팀은 2천여 종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꽃이 예쁘면서도 가시가 없고, 향기가 짙으며 병해충에 강해 수량이 많은 새로운 품종 육성을 목표로 연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배→채종→과중·육묘→1차선발→

국산 장미 신품종 개발·보급이 늘어 지난 2005년 전국 시장점유율(재배면적 기준)이 1%에서 지난해 5%로 늘었으나 외국산 품종 로열티 부담은 연간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봉기 원예연구소장은 "외국산 품종보다 더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 로열티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수한 특성을 가진 장미의 선별과 병해충 저항성 검증 등에 연구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새로 육성된 품종이 재배농가에 신속하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80농가가 46.4ha에서 장미 2천421만9천송이를 생산, 연간 26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윤기동 기자 song@



'월빙 과실' 비파 첫 수확

12개 들이 한 상자에 2만~3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완도군 신지면 한 농장에서 23일 이열대 '월빙 과실'인 비파를 첫 수확하고 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이 비파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완도군 제공)

해남 두륜산 생태지도 만든다

산림청, 지구온난화 생물 변화 가장 빨라

남방계 산림생물의 보고(寶庫)인 해남 두륜산의 산림 생태지도가 만들어진다.

산림과학원은 이 기간 동안 두륜산의 산림생태계 평가와 입지환경 및 토양특성 ▲식생구조·분류 ▲식물상 ▲야생동물 ▲곤충과 거미 ▲버섯류와 지의류(이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수리 팔라나비)이 풍부해 남방계 생물상의 보고(寶庫)로 산림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두륜산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상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기후변화 지표 산림"이라며 "또한 앞으로 국내유입이 예상되는 남방계 생물들의 최초 기착지로서 지구 온난화 영향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되는 산림"이라고 말했다.

'녹색 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

전남농협,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참여자 대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23일부터 사회 공익상품인 '녹색 마이너스통장' 판매에 들어갔다.

농협의 예·적금 납입액 범위 내에서 종합통장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법인 및 기타단체 제외)에 한하며, 대출한도는 담보 설정한 예·적금 납입액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매 결산일에 자동 산정한다.

여수박람회 홍보관 리모델링 D-1000일 행사 대비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이 대대적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D-1000일 행사를 대비하고 새로운 콘텐츠 설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40일간 오동도 앞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리모델링한다.

해남 '황새마을' 복원사업 유치 총력

郡 계획서 제출... 주민·환경단체도 힘 실어

해남군이 황새 마을 복원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황새마을 복원사업(총사업비 129억원) 유치를 위해 최근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주민, 환경단체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만년리 주민들은 '황새 마을 유치협의회'를 구성

하고 토지제공 협조, 친환경 농업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푸른 해남 21', '자연사랑 메아리', '함울 남도 생활' 등 환경, 시민단체와 지역 환경 전문가들도 황새 마을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은 최근 해남을 찾은 문화재청 실무팀에게 황새 복원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새 마을 복원사업을 신청한 곳은 해남군과 충남 서산군, 예산군 등 3곳이며 대상지는 이달말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계획면 만년리 일대는 무농약 단지인데다 인가가 드물어 황새 남도 생활 등 환경이 우수하고 근교전반, 금호호 등 자연습지도 황새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새는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돼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가사·간병 도와드립니다"

수자원공, 장흥읍 주변 복지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 서남권관리단(단장 김승호)은 지난 22일 장흥읍 주변지역 가사·간병 도우미 파견사업 추진을 위한 도우미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흥읍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장흥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해 6개월간 1명 주변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간병·가사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 서남권관리단과 장흥자활 후견기관은 '함께 나누면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2007년 자매결연 후 빈곤가정 도시락 배달사업, 빈곤가정 집수리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장흥=김용복기자 kykim@



담양 월산초 5·6학년

어린이 모의 의회체험

"어린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합니다! 팡팡!"

담양 월산초 5·6학년 34명은 최근 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에서 어린이 모의 의회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를 체험해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어린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직접 상정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결 진행과정을 방청했다.

학생들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게 돼 너무 재밌다"며 조례 제정과정에 흥미를 나타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m Auction) featuring a grid of auction lots with columns for location, lot number,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public auctions and a list of various real estate lots for sale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Jeonju, and Jeonnam.

• 서구청영 광주세무사사무소5층 • 관리분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명도(이사)